

• 누가복음 4:16-19, 24:13-35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인해 눈이 밝아진 사람들입니다(눅 24:31). 죽음, 두려움, 절망, 세상 등에 가려 보지 못했던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니, 인간의 헛된 수고로부터도 해방입니다. 주인을 신뢰하며 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창 1:26).

이제 내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우리의 모든 것은 최선과 최상으로 귀결됩니다. 필립 안시는 ‘고통의 속량’(redemp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도 내 삶에 유익하도록 속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세를 위해 현재를 견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말이지요(롬 5:3-4).

눈먼 자의 고통은 하나님이 선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명될 수 없는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속량은 고통을 피한다는 말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이 그리스도인만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통과해 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보게’ 된 인생을 ‘다시’(re-) 만들어 가십니다. 상처가 깊으면 회복된 후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때로 육신거려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아픔의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속량의 은혜로 끝맺어집니다. 이로부터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원은 아프기 전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 ① 나의 삶과 고통에 담긴 새로운 의미를 깨닫습니까?
- ② 이를 통해 나를 어떤 존재로 ‘다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